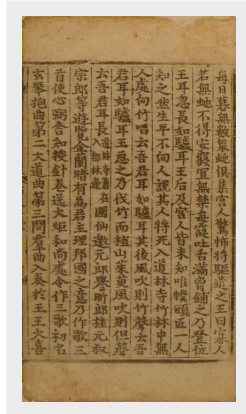


경문왕[景文王]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주인공

미상 ~ 875년(현강왕 1)



삼국유사 사십팔경문대왕조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경문왕은 신라의 제48대 왕이다. 왕실의 오랜 내분을 수습하고 이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다. 동시에 자신의 맏아들로 후계구도를 확립하고 이후 그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감으로써 새롭게 '경문왕가(景文王家)'를 형성했다. 재위기간 동안 관제를 개편하고, 불교와 유교를 진흥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해 나갔으나, 계속되는 재해로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2 경문왕의 가계와 왕위계승

경문왕의 성은 김(金), 이름은 응렴(膺廉) 또는 의렴(疑廉)이고, 시호는 경문(景文)이다. 아버지는 김계명(金啟明)이고, 어머니는 광화부인(光和夫人) 박씨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광화부인이 신무왕(神武王)의 딸이라고 되어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조부는 제43대 희강왕(僖康王)이고, 증조부는 김헌정(金憲貞)이다. 동생으로는 김위홍(金魏弘)이 있다. 부인은 영화부인 김씨(寧花夫人 金氏)로, 제47대 헌안왕(憲安王)의 첫째 딸이다. 즉위 이후에는 둘째딸도 왕비로 맞이했다. 자식으로는 김정(金景, 제49대 헌강왕(憲康王)과 김황(金暉, 제50대 정강왕(定康王), 김만(金曼, 제51대 진성여왕(眞聖女王) 등이 있는데, 경문왕 사후 차례로 왕위를 이었다. 그리고 헌강왕의 아들이자 경문왕의 손자인 김요(金嶠)는 진성여왕의 뒤를 이어 제52대 효공왕(孝恭王)이 되었다.

김응렴은 화랑의 우두머리인 국선(國仙)이었다.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며 심신을 수련하고, 사회상을 살피기도 했다. 860년(헌안왕 4), 헌안왕이 임해전(臨海殿)에서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 당시 15세(혹은 20세)였던 김응렴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헌안왕은 김응렴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착한 사람[善人]에 대해 질문했고, 김응렴은 화랑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답했다. 대답을 매우 흡족히 여긴 헌안왕은 그를 사위로 삼기로 결심하고, 두 딸 중 하나를 고르도록 했다. 이 때 흥륜사(興輪寺)의 승려이자 낭도였던 범교(範敎)가 첫째 딸과 혼인할 것을 권유했고, 이에 따라 헌안왕의 맏사위가 되었다. [관련사료](#)

3개월 후인 861년(헌안왕 5) 1월, 헌안왕은 큰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 좌우 신하들에게 김응렴을 왕으로 세울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그 달 29일에 세상을 떠났다. 헌안왕에게